하루를 시작하며

새해에 드는 생각들

허 경 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새해가 밝았다. 마을마다 신년 인사회를 열고 복 많이 받으라 덕담을 주고받는다. 연초에 만난 사람들과 서로서로 주고 받은 덕담만큼이나 모두가 건강하고 복 받는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격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년만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벌써부터 후보군이 난립하고 동네마다 현수막이 빼곡하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질 도지사와 도의원, 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이웃들이다. 누구를 뽑을까. 누가 당선될까. 특별자치도 20년에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이던가.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미래로 나간다고 했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도약의 전략을 방향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촘촘히 실현해 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4년 5개월의 남은 임기 중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내놓을 것인가. 지방에 사는 나로서는 자못 기대가 된다.

오영훈 도지사도 신년사를 밝혔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도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선 8기의 성과가 도민들의 삶 곳곳에 안착시키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차기 제주도정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지방균형발전 기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2공항을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등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남겨진 과제가 실로 만만치 않다. 게다가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권도 부산·경남까지 광역통합 행정체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미 결정을 하고도 보류된 채 남아있는 제주의 3개 구역 행정개편은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올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주도성장을 내건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속도감 있게 제주를 안착시킬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면 나타나는 정치꾼의 갈라치기 노림수와 쓸데없는 이슈몰이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학연 지연에 묶여 감성적 표를 던지고 나라 걱정, 마을 걱정에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과거를 재현해서도 안된다. TV 앞에서 가슴 졸이고 찬 겨울 거리로 나가야만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목전에 있는 부패 권력과 도덕적 해이에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마저 반납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과연 선출직 그들만의 잘못이던가.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권리만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할 때 진정한 주권이 살아난다. 지역의 가치와 민생 우선의 실현에 중심을 둔 인재의 선별과 선택이 중요하다. 국민의 권리가 의무보다 매서운 이유다.

사설

제주 이주 청년 지원 '언 발에 오줌 누기'

제주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심각하다. 순유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과 함께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주 이주 청년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지원규모가 적고 단발성이어서 청년 제주 정착 유인책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제주도는 청년의 제주 정착을 지원하는 '2026년 탐라청년출발 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 전입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도내 청년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은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사례다. U턴형은 과거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1차 전입축하금,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2차로 나눠서 총 10만원이, U턴형도 1,2차로 나눠서 총 20만원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제주 이주 청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적고 지원횟수가 2회에 그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제주 청년정책사업 중 지원규모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있어서다. 물론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렇지만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주 이주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규모와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제주 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것 아닌가.

벽에 부딪힌 수소트램, 정부 설득 가능할까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트램 가이드라인'이라는 현실적 벽에 직면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트램 사업의 수요와 비용 기준을 제시했는데, 제주 수소트램은 이 가운데 총사업비 기준에서 벗어난다. 가이드라인은 트램 총사업비를 ㎞당 350억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제주 계획은 ㎞당 409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경제성 지표 등이 정부 지침을 충족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를 단순한 권고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비 60% 지원을 전제로 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서 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장기 재정 부담은 핵심 판단 요소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절감 방안 없이 "설득할 수 있다"는 낙관만으로는 중앙정부와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노선 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계획 변경이 반복될수록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소트램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세운 교통체계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렇기에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보다, 제주가 왜 예외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제주 수소트램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도민의 공감대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에 달려 있다.

열린마당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최 희 주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새해를 맞이하는 1월, 시민들의 우편함에는 첫 정기분 고지서인 등록면허세가 배달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나 신고수리된 면허를 보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귀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자를 응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폐업' 관련 문의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면 당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진행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신고 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도 폐업신고가 돼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납세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세무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카드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CD/ATM를 이용하거나 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ARS(142211)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청 실국장들 '미래 신산업' 현장으로

오늘 기업 방문·전문가 토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정기인사로 꾸려진 실국장급 간부진이 도정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취지로 21일 도내 기업 현장 방문과 전문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

오영훈 지사가 함께하는 이번 방문은 제주한화우주센터 등 제주도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과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도정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제주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오 지사는 이날 방문을 앞두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제 구조 개선과 민생 경제 실질 변화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새해 첫 가축시장 청신호

○…새해 첫 문을 연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서 출품우 전 두수가 1차 경매에서 유찰 없이 낙찰되며 순조로운 출발.

20일 서귀포시축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장한 가축시장에는 암소 30두와 수소 36두 등 모두 66두가 출품된 가운데 평균 낙찰가는 암소 429만원, 수소 424만원으로 집계되며 암소 가격은 강세를 유지했고, 수소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김용관 서귀포시축협 조합장은 "어려운 축산 경영 여건 속에서도 출품우 전 두수가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되고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운영을 기반으로 가축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 오은지기자

부 Rotary 고

한림로타리클럽 제30대 회장 조은덕(초록우산어린이재단제주후원회장 · 향년 62세)께서 서기 2026년 1월 19일 작고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1월 21일(수요일)
▶발 인 : 2026년 1월 22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층 2빈소
▶영 결 식 2026년 1월 22일(목요일) 오전 8시 부민장례식장
▶장 지 : 양지공원

배우자 김 민 숙
아 들 조 현 민
딸 조 예 은
사 위 서 청 우

국제로타리 3662지구
Rotary 한림로타리클럽
회 장 고 창 문 외 회원 일동

※ 연락처
회 장 고 창 문 010-9016-4090
총 무 서 경 훈 010-9865-1153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유진(1982. 01. 10.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고전길 5, 301호(이도일동, 극동오벨리스크3차)

상기자는 2025년 6월 1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1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5느단57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고전길 5, 301호(이도일동, 극동오벨리스크3차)
송달장소: 제주시 남광북5길 12, 4층 (이도이동 1082-3)
송달영수인 : 임정현

2026. 1. 21.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지윤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